

사랑의열매

Issue 133 \ May 2018 05

대한민국 어린이들이여
꿈을 활짝 펼쳐라!

100억 원대 장학금 후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아이들의 푸르른 5월

시골길 위에 자전거 한 대가 간다.
꼬질꼬질 흙먼지가 잔뜩 묻은 늘어난 옷에 반바지 차림,
검게 그을린 꼬마는 무엇이 그리 신이 났는지 끝나지 않는 자작곡 돌림노래를 흥얼거리며
페달을 밟는다.

구멍가게 앞에 선 아이는 파리채 휘두르는 할아버지 뒤에서 큰소리로 외친다.

“하비! 사이다 한 통 주세요, 시원한 놈으로다가”

“니 체했나?”

“할미 새참으로 떡 드신 게 없었어요.”

“그래? 여 있다. 글고 여기 뽕뽕이 과자 하나 선물이다. 아마 별사탕 잔뜩 들었을 게다.”

짧고 투박하지만 오랜 시간 나누었던 정(情)이 느껴진 대화

30년이 훌쩍 지난 5월의 문턱에서
그 아이는 4살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했던 기억을 더듬는다.

“아빠가 너만큼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야.”

돌아보니 장난감보다 사랑이 담긴 손길과 눈빛이 더 오래 가슴에 남았다.
아이들에게 어떤 추억을 선물할지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
그 시절 꼬마 녀석이 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글 김태식(인천 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과장) 일러스트 이철원



목차



08



First Person

100억 원대 장학금 후원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12



특집

대한민국 꿈나무에 투자하는 사랑의열매

18



화제

시설 퇴소 보호아동 · 청소년에 '자립의 길' 법으로 도움

20



포커스

공동모금회, 지난해 위기가정에 884억 '퀵서비스'

22



착한기업

아모레퍼시픽

28



현장

인천 선학음식문화거리 착한가게 · 나눔의 거리 선포

30



착한일터

디엠씨

32



착한 가게가 있는 풍경

경북 울진

36



희망스토리

해양쓰레기 치위 짝빛 청정바다로



Cover



맨땅에서 시작해 연 매출
수조 원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건설업계
임지전적의 인물로 타고난 경영
감각은 물론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미덕까지 갖췄다.
100억 원대 장학금을 지원해 온
김상열 회장의 나눔 이야기.





38

The Page

놀이를 통해 배우는 나눔과 배려

40

Alive Chest

세종 공동모금회

44

나눔 리포트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이 뿌리내리려면

46

나의 나눔 이야기

결혼식 비용 아껴 어려운 이웃과 나누니 기쁨 두 배

47

모금회 뉴스

중앙회 ·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7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8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33 2018 / 5

발행인 김명자

발행일 2018년 5월 / 통권 133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모이면, 희망이 보입니다.

사랑의열매는 개인기부 33만 명, 착한가게 2만 3,184여 곳,
아너 소사이어티 1,772회원과 기업 28,047개의 참여로
매년 더욱 풍성하게 열립니다.

201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5,553억 원**
(81만 건)은 국내 10대 자선단체와 모금기관의
국내 공익사업비 지출 1조 600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출처_한국가이드스타>

빈곤 지원
3,990억

질병 지원
749억

소외 지원
814억



빈곤
분야 지원액

기초생계
2,567억

교육·자립
925억

주거·환경
498억

질병
분야 지원액

보건·의료
607억

심리·정서
142억

소외
분야 지원액

사회적돌봄
377억

소통·참여
260억

문화경차해소
177억

2017년 총 지원액

5,553억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 전문 기관입니다.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장 투명한 기부금 관리,
공정한 지원절차로 대한민국의 민간 복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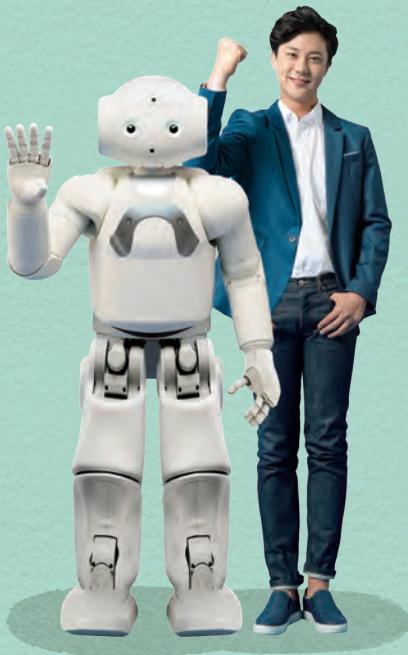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나눔의 새로운 길

사랑의열매가 시작했습니다

가난으로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굴레를 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꿈을 이루는 기회를 줍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14~24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로지원을 돕는 '희망플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부상담 080-890-1212 | ARS 기부 060-700-1212

First Person

글 김가린 사진제공 호반건설



100억 원대 장학금 후원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경영의 명수, 나눔의 선구자로

맨땅에서 시작해 연 매출 수조 원대의 기업을 일군 호반건설의 창업주 김상열 회장.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주목할 만한 리더로 그를 지목하고 있다. 진중한 성격과 영민한 경영 감각, 굳건한 자신감은 물론 베풀 줄 아는 미덕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성공 신화로 기억될 그의 경영 이념에 대해 묻자 망설임 없이 “도움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 답한다.

기업의 초고속 성장 이유는 보답하는 나눔의 실천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자 M&A의 승부사, 김상열 회장의 대담한 행보는 모두가 고개를 가로저을 때 더욱 빛을 발했다. 때를 기다렸다가 놓치지 않고 낚아채는 솜씨 덕분에 자본금 1억 원의 작은 지역 사업체는 10여 년 만에 어엿한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그동안 수없이 찾아온 위기는 유독 그에겐 기회가 되었다. IMF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로 업계 전체가 휘청거릴 때에도 호반건설만이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간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행보만 보면 승부사적 기질이 다분해 보이지만 김 회장은 사실 주도면밀한 안전제일주의자다. 전남 보성에서 나고 자란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중소 건설사에 들어가 일을 배웠다. 건설업에 대한 흥미와 남다른 도전정신으로 20대 후반 나이에 직원 5명을 둔 자신만의 회사를 호기롭게 설립했다. 그 회사를 빠르고 내실 있게 키워갈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림 없이 보수적이고 똑심 있는 경영철학 덕분이었다. 분양률이 90%를 넘지 않으면 신규 분양을 하지 않았고 어음거래 역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회장이 꼽는 성공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첫째는 고객들의 사랑, 둘째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서 받은 도움에 보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은 오너만의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여기까지 올 수 있죠. 사회공헌활동은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미래형 인재 양성 위해 123억 장학금 후원

직원들의 눈에 비친 김상열 회장은 항상 근검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는 일꾼 그 자체다. 돌다리 를 두들겨보고도 건너기를 고민한다는 그는 직원들에게 외부에 나가 사업 자란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런 그가 지난 2012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의사를 밝혔다. 평소 결정을 앞둔곤



김상열 회장은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선도하며 확산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경기 침체로 모금활동이 감소할 때면 김 회장은 사재를 털어 성금을 전하며 출선수범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왔다. 광주의 나눔문화를 새롭게 정립시킨 김 회장은 지난 4월을 끝으로 6년간 이끌었던 광주 공동모금회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무척이나 신중한 김 회장이지만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만큼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6년 만에 졸업할 만큼 그의 학창시절 가정 형편은 좋지 못했다. 학업에 대한 갈망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누구도 그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꾸는 것을 포기하거나 기회를 잡지 못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특히 장학사업에 깊은 애정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을 실천할 리더를 배출하는 것은 지금의 기업가들이 할 몫이죠.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들이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너 가입 외에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는 그의 꾸준한 나눔 경력은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사재를 출연해 호반장학재단을 설립했고, 현재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 19년간 총 7,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약 12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학생들을 위한 ‘레인보우’ 장학금,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면학에 전념하는 학생들을 위한 ‘꿈드림’ 장학금, 지역 우수 인재들에게 대학 4년간 지원되는 ‘호반회’ 장학금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올해도 38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원들도 매월 찾아가는 봉사활동 펼쳐

오너의 사랑 나눔에 임직원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호반건설 역시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하기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임직원 봉사단인 ‘호반사랑나눔이’는 2009년부터 매월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실천 중이다.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은 물론 야생 동물들의 생태계 보존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건설업종의 특성을 살려 호반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쌀을 모아 지역사회에 나누기도 한다.

김상열 아너는 호반건설의 나눔활동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얻었다는 한 학생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나눠주는 사랑을 바탕으로 저도 사회에 나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면 임직원들과의 작은 용기가 더 큰 나눔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해진다. 부모의 마음처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할 수 있길 바랐는데 되레 자신이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쁘기도 하다.

수년간 이어온 사랑 나눔을 통해 김 아너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됐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개인과 사회가 더불어 잘살기 위한 최선은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삶의 모습일 겁니다. 한 기업의 오너이기에 이익창출이라는 목표만 보며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웃과 나누지 않고, 사회 곳곳에 따뜻함을 전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시대의 성장을 이끌 리더로서 더불어 사는 것을 최상위 목표로 삼고 달리겠습니다.” ❀

특집_대한민국 꿈나무에 투자하는 사랑의열매

글 한상현 사진 임영근, 이광재, 공동모금회

외국어 가르쳐주고 공부방 만들어주고 네 꿈을 활짝 펼쳐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의 꿈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아동·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에만 1,243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별 배분액 중 두 번째로 많은 22.4%에 해당한다. 공동모금회는 다양한 어린이 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가 존중과 보호받을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꿈을 응원하고 있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의 마지막 조항이다. 우리의 소망인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 밝고 건강하게 꿈을 꾸며 자라는 아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꿈을 말하기도 전에 포기를 배워야 하고,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절망하는 아이들도 있다. 공동모금회는 이 땅의 모든 아이가 필요한 교육과 보살핌을 받으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소외받는 아이들에 영어 교육

“한국 사람 같은데 영어 엄청 잘해요”

해외입양 한인들 채용... 20곳에 배치



벨기에 입양인 장하다씨

“영어 즐길 수 있는 계기 만들어주고 싶어”

“2년 전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에서 해외 입양인을 위한 채용 공고가 있었다. 모국에 와서 직업을 찾는 나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나에게 원동력이 됐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기쁨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특히 이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서 격차가 큰 편인데, 그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도 처음부터 챔피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 피겨스케이팅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영어가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저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이 영어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저 해외에서 일해요. 선생님이라 영어 공부해서 좋았어요’라고 말해준다면 정말 너무 기쁠 것 같다.”

엄마가 베트남 국적인 동일(가명·8)이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게 즐겁다.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영어 수업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도 주위가 산만하고 장난꾸러기로 소문난 동일이가 영어 수업만큼은 집중력 있게 듣는다고 한다.

“우리 선생님은요, 한국 사람 같은데 영어 엄청 잘해요. 영어로 게임도 하고 정말 재밌어요” 동일이가 참여하는 영어 수업은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가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나눔과 꿈’ 사업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 교육복지 ‘미래 경제 영토를 넓히다’라는 취약계층 아동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이색적이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은 모두 해외에 입양돼 살다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회복하기 위해 모국으로 돌아온 해외 입양인들이다.

지난 4월 13일 영등포에 있는 솔로몬지역아동센터. 벨기에에서 온 입양인 장하다씨가 아이들과 ‘미카도(Mikado)’ 놀이 게임을 이용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었다. 부모를 만나고



2017년 ‘나눔과 꿈’ 사업

싶어 한국에 왔다는 그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한국에 정착까지 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즐겁다는 장하다씨는 “이 수업은 저에게 ‘보답’과도 같다. 벨기에로 입양되고 40년을 여행하듯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멘토로서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영은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간사는 “입양인들 모두 소외받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려 노력한다”며 “영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 입양된 한국 아동은 15개국 2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는 영어권 국가의 입양인 중 모국 정착을 희망하고 영어 교육이 가능한 학력과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을 선정해 지역아동센터 영어교사로 파견하고 있다. 현재 18명의 교사가 도봉구, 영등포구, 인천시, 경기 광명시 등 4개 지역 2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아동들을 모두 초청해 선진 15개국 글로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1박2일 영어캠프를 연다.

공부방 만들어주기

책상·컴퓨터 외에 수납장·옷장도 제공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신선했던 자رق

디자이너가 꿈인 주희(가명·12)는 책상을 갖는 게 소원이었다. 자기 방에서 자기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다.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려면 차가운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색칠을 했다. 주희는 부모님의 이혼 후 원룸에서 엄마와 동생, 그리고 몸이 불편한 외할머니, 이렇게 세 식구와 함께 살고 있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는 딸의 바람을 애써 외면해 왔다. 적은 수입에다 그나마 할머니 병원비와 두 자녀의 양육비로 대부분 지출되니 이사는 꿈일 뿐이었다. 또한 네 식구 살기에도 좁은 집에 책상을 들여놓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더 프라미스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선정된 12가정에 주희도 포함됐다. 우선 제대로 된 가구가 없어 옷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던 집에 수납장과 옷장을 지원해 말끔히 정리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컴퓨터까지 지원을 해 주희의 소원을 이뤄줬다. 얼마 후 더 프라미스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주희가 직접 쓴 감사의 편지였다.

“저희 집 리모델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책상이 생기기 전에는 공부할 곳이 없었는데 책상이 생기고 나서는 그림을 그리기도 편해졌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했던 주희는 이제 스스럼없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다. 디자이너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주희의 꿈을 응원한다.



보호시설 어린이에게 책 보내주는 이상견 아너

“책을 통해 꿈 키운다면 최고의 선물이죠”

시설이 아닌 아이들 개인 소장품으로 전달

“책 속에 길이 있어요. 아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꾸고 꿈을 키워 나간다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0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이상견 한국후락스 대표는 인천 지역 아동보호시설 7군데에 매년 400권이 넘는 책을 보낸다. 아이들이 읽고 싶다며 신청한 책을 구입해 보내준다. 이 책은 시설 공용이 아니라 아이들의 개인 소장품으로 전해진다.

“아이들 각자가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몇 개월에 걸쳐 다 구입해요. 그리고는 직접 들고 가 아이들에게 나눠주죠. 책을 읽지 않던 아이들이 책을 읽게 돼요. 무엇보다 책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가 아동보호시설 아동들에게 책을 보내는 것은 책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향한 길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아동들이 보내준 감사의 편지를 읽을 때면 이보다 반갑고 감사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이 독후감을 써서 보내줘요. 내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 보내주고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과 마음의 변화를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서 말이죠.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오�히려 배웁니다.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 더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책 종류도 다양하다. 저학년들은 그림책이나 마법천자문 같은 학습도서를 선호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소설이나 자격증 관련 전공서적을 신청한다.

책값이 만만찮을 것 같은데 이견 시작에 불과하다. 이상견 아너는 매년 새해가 되면 인천 지역 아동보호시설에 세뱃돈을 보낸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가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용돈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세뱃돈은 공식적으로 용돈 받는 날이니 명절의 즐거움을 느끼라고 보내고 있어요.”

이상견 아너는 2009년 어느 날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향진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 아이들을 보니 세뱃돈을 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깨끗한 신권으로 100만 원을 준비해 세뱃돈으로 쓰라고 원장에게 건넸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인천 지역에 있는 7군데 아동보호시설에 세뱃돈과 여름방학 캠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임직원 자녀들의 장학금도 빼놓지 않고 챙긴다는 이상견 아너는 그만의 확고한 나눔 철학이 있다.

“저에게 너만의 행복 그릇이 있어요. ‘이 정도 채우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릇이죠. 그 그릇이 다 차고 넘치는 것은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이 매년 성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제 행복 그릇을 조금 작은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나눌 수 있잖아요.”

WHO AM I 프로젝트

부모와 떨어져 보호시설에 살았던 아이들
고향 방문하듯 '폼하우스' 숙박 프로그램도

어렸을 때 부모의 품을 떠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음에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 자신은 누구이며 어떻게 시설에 들어가게 됐는지 궁금해한다. 부모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는 반면에 처절함도 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마음에 난 생채기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아동양육시설인 이화영아원은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나눔과 꿈'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아동의 자아정체성을 찾아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로 자라도록 'WHO AM I'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을 키워준 시설의 보육사 엄마와 함께 게스트하우스인 '폼하우스'에서 숙박하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듯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홈커밍데이라고 보면 된다. 어렸을 적 이화영아원에서 1년 동안 자랐다는 수민(가명·14)이는 'WHO AM I'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사 엄마를 만나러 왔다. 잠 안 자고 떼쓰던 이야기도 듣고 자신이 잠자던 방도 가보았다. 시설에 남아 있는 자신의 사진으로 라이프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였다. 수민이는 “보육사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어릴 적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을 들었고 나를 키울 수 없었던 엄마의 사정도 들으면서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강은숙 이화영아원 원장은 “아이들이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다”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민이는 배우가 꿈이다. 유명해져서 TV에 나오면 엄마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WHO AM I' 프로그램을 통해 꿈이 바뀌었다고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다.

미래 설계 날잡자(NALJOBJA) 프로젝트

“꿈이 있는 나를 잡고 꿈꾸는 직업을 잡자”
대학탐방·중창단 모임 들어가 자신감 찾아

지은(가명·16)이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었던 아이였다. 친구들과의 트러블도 잦았고 건강도 좋지 않아 늘 누워 있었다. 이런 아이가 브라질 판 난타라고 할 수 있는 '다투카타'를 하면서 변했다. 리듬을 책임지는 대장 역할을 하다 보니 성격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처음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이정명 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장은 “날잡자(NALJOBJA)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며 “꿈을 꾸는 아이들로 자라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날잡자' 프로젝트는 '꿈이 없는 내가 아니라 꿈이 있는 나를 잡자'는 의미와 '꿈꾸는 직업(JOB)을 잡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폼하우스 프로그램 참여한 박수민 군 “나를 떠난 엄마 원망했지만 이젠 이해하게 돼”

“WHO AM I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맡겨진 이화영아원을 다시 찾았을 때 왠지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이었다. 동생들을 보면서 '나도 이곳에서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에 동생들과 재미있게 놀아줬다. 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라이프북을 만들면서 나를 찾아가는 기분이었다. 저녁에 있었던 심리극 치료는 마음에 났던 커다란 상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심리극을 하면서 내 속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외로웠던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막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엄마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엄마도 가정이 있을 테고 엄마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굳이 찾고 싶지는 않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심리치료를 통해 내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나쁜 감정을 모두 꺼내내고 싶다.”



1 울산 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에서 '날잡자(NALJOBJA)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다투카타'를 연습하고 있는 아이들.
2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더블어숲중창단 아이들이 뮤지컬의 기본이 되는 발성법을 배우고 있다.

이곳 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근수(가명·16)는 반에서 성적 상위 5% 안에 드는 모범생이다. 그러나 가정 형편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다. 이정명 센터장은 '날잡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또래 아이들과 방학을 이용해 대학 탐방을 갈 것을 제안했다.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항공대, 홍익대를 다녀왔다. 근수는 서울대의 규모에 놀랐다. 정문에서 사진을 찍으며 미래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뮤지컬 배우 꿈 갖게 '뮤지컬아 놀자' 코너도

더블어숲중창단은 제주도에서 이름난 소년소녀합창단이다. 더블어숲지역아동센터 아이들로 구성된 중창단은 수년간 갈고 닦아 노래 실력이 수준급이다. 제주도 지역 행사에 초청돼 공연할 정도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열린 '목관아지 달빛콘서트'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임성옥 더블어숲지역아동센터장은 "노래만 하다 보니 단편적인 것 같아 아이들에게 다양한 꿈을 꾸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종합예술인 뮤지컬을 접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블어숲지역아동센터는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뮤지컬아 놀자 썩썩(Sing & Think) 스토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뮤지컬은 노래는 기본이고 여기에 연기와 안무까지 배워야 한다. 음악 이론부터 감상법, 발성법까지 뮤지컬 기본기를 배워 무대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임성옥 센터장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에게 노래만큼 훌륭한 치료제가 없다"며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면서 춤도 추는 뮤지컬을 통해 아이들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블어숲중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 유빈(12)이는 썩썩 스토리 수업을 하면서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유빈이는 "노래하는 게 좋아 성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뮤지컬을 배워 보니 재미있다"며 "열심히 연습해 뮤지컬 배우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임성옥 센터장은 "여름방학 때 2박 3일 음악캠프를 열어 음악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고 6월에는 희망나눔자선콘서트에 동요로 만든 뮤지컬을 세워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설 퇴소 보호아동·청소년 법으로 ‘자립의 길’ 열어주나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공청회가 열렸다. 시설 퇴소 아동 및 청소년이 자립에 성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꿔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화 추진 공청회에서 열띤 토론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및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법제화 추진 공청회가 지난 4월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법제화를 추진하는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주거 지원, 개인별 욕구에 맞는 사례 관리 진행, 자립 체험 및 자립 교육을 실시해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를 해 자립해야 한다.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삼성전자 임직원의 기부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3년 동안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이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 지자체의 조례로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예산 반영 등 변수가 많아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우려스러움이 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부산과 대구, 강원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에 법제화를 통해 정착되고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청회가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장은 “보호아동의 성공적 자립은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화두”라며 “보호종료 아동 모두 물고기 잡는 능력을 갖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시설 퇴소 청소년 거의 절반이 주택지원 못 받아

남인순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시설 퇴소아동의 절반 정도가 갈 곳이 없어 떠도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해 시설 및 그룹홈 퇴소 아동 1,182명 중 51.7%만이 주택을 지원받아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H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주택지원을 받는 퇴소아동도 36.6%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호아동 자립지원시설이 전국에 총 12군데로 8개 시·도는 퇴소아동



“아동복지법에
자립통합지원의
개념을 추가하고
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해야”

김형모 한국아동복지학회장



“보호종료 아동 모두
물고기 잡는 능력을 갖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작점으로”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이제 첫걸음을 뗐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계속 활발하게 논의되어
법제화의 완성도를
높여가길 바라”

김성경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지난 3년간 부산과
대구, 강원에서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에
법제화를 통해 정착되고
확대돼야”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자립지원과 관련된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퇴소 아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추진하는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법제화가 중요한 이유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형모 한국아동복지학회장(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보호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에 있어 주거문제는 중요한 전제 조건임에도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은 미약하다. 그 결과 아이들의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질적인 자립훈련과 주거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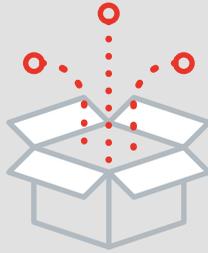
김 회장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도 2016년 6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 아동 자립생활원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형모 회장은 “우리나라도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을 법제화해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에 자립통합지원의 개념을 추가하고 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전국 시도에 1개 이상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화는 보호종료 아동 입장에서 논의돼야”

토론자로 나온 김가영 강원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 “법제화 추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번 연구의 자립지원시설 현황 조사가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건 아쉽다”고 지적했다. 신인호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ONE STOP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이것이 법제화되면 지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제화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성경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제화는 보호종료 아동의 입장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며 “이제 첫걸음을 뗐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계속 활발하게 논의되어 법제화의 완성도를 높여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동모금회, 지난해 5,500여억 원 이웃에 배분 위기가정에 884억 ‘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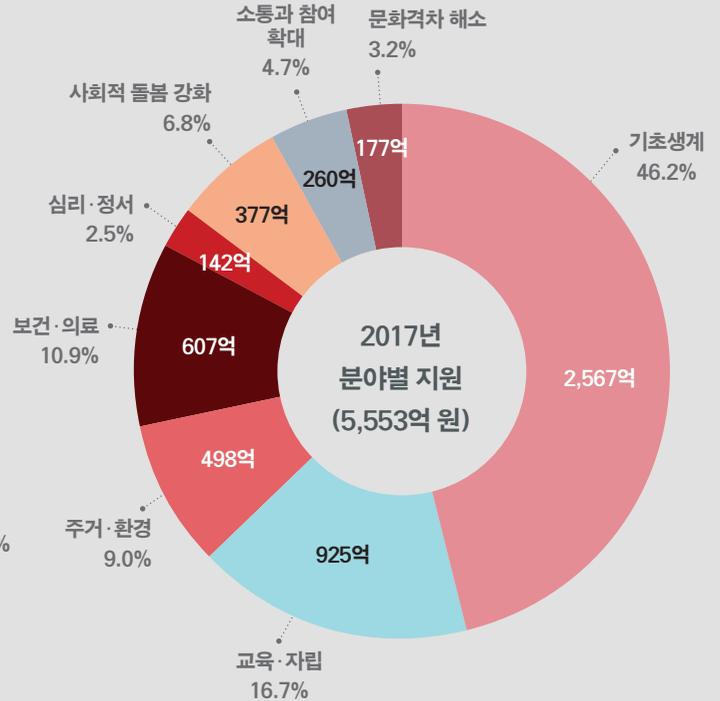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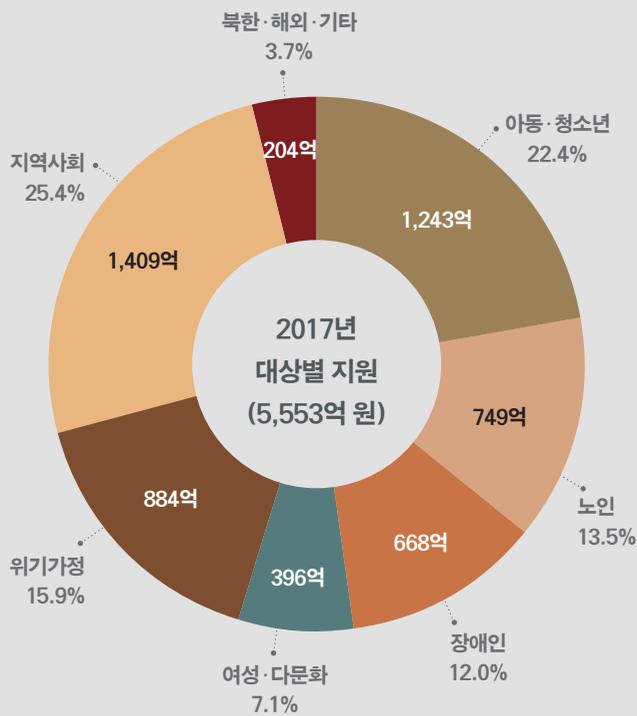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위기가정 긴급 사업에 884억 2,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2016년에 비해 11.4% 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이석재(가명·41)씨는 지난해 11월 밀린 월세를 못 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받고 희망을 되찾았다. 2016년 5월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씨. 일정한 수입이 없기에 월세가 1년 가까이 밀렸다. 월세보증금까지 소진되자 집주인은 방을 비워줄 것을 독촉했다. 그 무렵 아내와 이혼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겨울을 앞두고 어린 아들과 길거리로 내쫓길 상황에 놓이자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삶의 끈을 놓으려 했다. 그러다 근처 복지관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긴급 지원금으로 밀린 월세를 해결하면서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

지역사회 지원·아동·청소년 지원 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이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위기가정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총 884억 2,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2016년보다 11.4% 64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공과금 체납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거나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가정, 실직·질병·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가족 해체 또는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수치는 전체 지원 금액 중 15.9%를 차지하는 것이며 전통적으로 지원 금액이 많은 지역사회 지원(25.4%)과 아동·청소년 지원(22.4%)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19일 2017년 총 배분액 및 분야별·지원대상별 배분액을 집계해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계 지원이 2,567억 원(46.2%)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생계 지원은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포함해 기본적인 생활도 꾸리기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는 ▶ 교육·자립 지원 925억 원(16.7%) ▶ 보건·의료 지원 607억 원(10.9%) ▶ 주거·환경 개선 498억 원(9.0%) ▶ 사회적 돌봄 강화 377억 원(6.8%) ▶ 소통과 참여 확대 260억 원(4.7%) ▶ 문화격차 해소 177억 원(3.2%) ▶ 심리·정서 지원 142억 원(2.5%) 순이다.

지원 대상별로 보면 ▶ 지역사회 지원이 1,409억 원(25.4%)으로 가장 많았고 ▶ 아동·청소년 1,243억 원(22.4%) ▶ 위기가정 884억 원(15.9%) ▶ 노인 749억 원(13.5%) ▶ 장애인 668억 원(12.0%) ▶ 여성·다문화 396억 원(7.1%) ▶ 북한·해외·기타 204억 원(3.7%)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김연순 사무총장 “극단적인 선택 안 하게 사전 예방을”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도 모금회는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배분금은 2017년 연간 모금액과 2016년도 연말연시 집중모금캠페인 성금으로 조성됐다. 공동모금회는 매년 모인 성금을 그해에 지원하고 있으며 단, 연말에 모금된 성금은 시기적으로 다음해에 배분한다. ❀

착한기업_아모레퍼시픽

글 박미진 사진 아모레퍼시픽, 광주광역시활성센터,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이대복지관

A MORE
BEAUTIFUL
WORLD
AMOREPACIFIC

2020년 20만 명의 여성이 아름답게 피어나다

아모레퍼시픽은 '미'와 '건강'이라는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글로벌 뷰티 기업이다. 아모레퍼시픽만이 창조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사회와 더불어 행복해지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누군가를 좇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만난다.



여성·자연생태·문화를 3대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아모레퍼시픽은 'A MORE Beautiful World'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자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사회와 더불어 행복해지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뷰티 기업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모든 여성이 자신과 가족, 사회와 인류를 위해 무한한 능력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왔다고 믿기에, 여성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더불어 여성의 삶이 아름다워졌을 때, 이 세상 또한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이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아모레퍼시픽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여성, 자연생태, 문화의 3대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의 건강과 웰빙,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통해 삶과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삶 속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대중과 소통하고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특히 여성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20 by 20' Commitment 선언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20만 명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여성암 이슈 지원 통한 여성 건강과 웰빙 실현

아모레퍼시픽은 여성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진정한 웰빙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법인이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문제되는 여성암(유방암, 자궁 경부암 중심) 이슈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방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30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인식 개선, 3040 여성 대상의 자가검진 방법 및 유방 건강 교육, 4050 여성 대상의 검진 및 수술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50대 유방암 환자 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심리적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매년 최소 35억 원 집행, 4만 9,000여 명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여성 암 환자에게 뷰티 노하우 전수
한국 이어 중국 등 6개 법인에서 진행

오랜 시간 투병을 해야 하는 암은 환자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피해를 준다. 당연하게 누리던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상실감, 특히 갑작스러운 외모의 변화로 낮선 자신과 마주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갖게 된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여성 암 환자에게 피

부 관리와 메이크업 방법을 이용한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이다. 더 예뻐지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누리던 평범한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나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개인과 사회 건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한국에서 시작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2011년 중국, 2015년 베트남에 이어 2017년 홍콩, 대만, 싱가포르까지 6개 법인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성장했다. 현재까지 1만 4,040명(2017년 기준)의 여성 암 환자가 메이크업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2017년 한 해에만 1,680명이 수혜를 입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방문 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셀러 및 교육 강사, 판매 직원 등 아모레퍼시픽 직원 5,241명이 자원봉사에 나서 더 뜻깊은 캠페인이다.



핑크리본 캠페인

유방 건강과 암 조기 검진 중요성 알려
전국 5개 곳에서 핑크런... 핑크투어도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유방건강재단이 파트너십을 통해 유방암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는 핑크리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유방암은 약 1/3의 환자가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 검진을 통해 발견하는데, 조기 발견할 경우 완치율이 90%가 넘는 질병이다. 올바른 유방 건강 관리로 조기 발견을 할 경우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핑크리본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인 '핑크런'은 유방암의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러닝 축제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참가비 전액(1인당 1만 원)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하며, 유방암 환자의 수술비 지원 및 검진 지원에 사용되어 자신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행사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2만 3,600명의 참가를 통해 총 35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되었다.

유방건강강좌 '핑크투어'는 조기 발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방암 자가 검진 방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유방건강교육 프로그램이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서 1,134회에 걸쳐 28만 5,000여 명이 넘는 일반인이 유방자가검진 및 생활 속 유방건강강좌를 수강했다.

중국 빈곤지역 암 무료 검진

유방암·자궁경부암 발병 높은 지역 대상
2016년부터 15만 4,000여 명 검진 및 교육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내 빈곤지역 및 여성 양대 암인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이 높은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로 여성 양대 암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대 암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무료 교육을 실시했다. 2016년 6월, 아모레



퍼시픽은 기초생활수준, 의료지원 현황, 양대 암 발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 구이저우성, 헤이룽장성의 각 3개 현(縣)을 선정했다.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 각 현의 현지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양대 암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각 성(省)급 병원의 전문의를 초청해 양대 암 관련 지식과 치료법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료 검진을 받은 여성은 총 1만 2,078명으로, 그중 114명의 여성이 양대 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95번의 교육을 진행해 총 4만 3,500명의 여성이 여성 건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궁경부암을 조기 발견해 수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여성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에 참석하는 뜻깊은 만남도 있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 7월에는 중국 광시 지역을 시작으로 후난성, 구이저우성의 7개 현을 돌며 제2회 양대 암 무료 검진과 여성건강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도 현지 여성의 생활에 대한 경험 및 이해를 바탕으로 양대 암 퇴치를 위한 세심한 케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역량 강화 통해 여성 자립 기여

1964년 방문판매 제도를 도입해 전쟁 직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가장들이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던 아모레퍼시픽.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갖기 어려웠던 여성에게 경제활동 할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가 힘이 되어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 여성과 함께 성장해 온 아모레퍼시픽은 지속해서 여성의 삶과 꿈에 관심을 갖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자립,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매년 최소 35억 원을 들여 1,000여 명 지원을 목표로 지원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희망가게

한부모 여성의 창업 자금 신용대출
창업 컨설팅·기술 교육·재무 등 상담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이 출중해도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금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이 없는 한부모 여성에게는 더없이 높은 벽이다. 아모레퍼시픽과 아름다운재단이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하는 '희망가게'의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은 여성 가장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최대 4,000만 원까지 창업 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창업주와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금융 접근성 개선(희망가게 대출 조건에 따른 이자 절감분) 및 가처분소득 증가(창업 후 소득 증가분 및 사회적 순수익)의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있다. 그 외에 창업주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전문 창업컨설팅, 기술 교육, 법률, 재무, 심리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자원이 제공되며, 창업 후 사후 관리를 통하여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출 상환금은 '희망의 씨앗 자금'으로 적립해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여성 가장에게 기회를 제공해 아름다운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 창업을 지원해 모자가정이 생활 안정을 이루도록 힘쓰는 희망가게는 2004년 1호점 개점 이후 현재까지 334개점(2017년 12월 기준)이 문을 열었다.

뷰티플라이프

지역사회 저소득층 여성 취업 지원 프로젝트
전문 교육부터 실습, 취업, 창업까지 경제적 자립 도와

뷰티플라이프는 전국 취약 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취업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아모레퍼시픽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기존의 지정 기탁을 통한 여성의 취업 지원 사업과 함께 공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에 매년 지정 기부해 취약 계층 여성의 취업 기반 형성 및 경제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1:1컨설팅을 통한 섬세한 맞춤형 통합자립지원 서비스, '뷰티플라이프'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뷰티플라이프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고유한 재능과 역량을 발견하고 개발해 당당한 주체로서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통합적 자립지원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바리스타나 돌봄 관련 일부터 부동산 중개사, 품질관리사와 같은 전문직, 창업을 위한 비누 공예 전문가 등 개인의 경력과 원하는 직업에 맞춰 30~40여 직종의 전문업체와 연계해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맞춤 서비스의 결과 1차 교육수료자의 64.5%가 취·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진행되는 뷰티플라이프는 자립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총 7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상담을 통한 구직 설계, 내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력과 신입으로 구분한 직업 기술 훈련 시행, 직무별 인턴십과 구직활동 및 취업 알선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취업자의 사회적응 교육과 경력



인턴 웨딩도우미 이성혜(53)씨

"50대, 자신감이라는 큰 선물을 얻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교육이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 웨딩도우미로 드레스숍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상황들을 접하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있어요. 군인이었던 남편이 퇴역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우고 보니 삶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지만 특별한 경력도 없이 늦은 나이에 취업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두려움도 컸고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발을 디뎌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관리 상담을 통한 고용유지 경력 관리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경험과 인턴십을 체험하며, 경제활동에 따른 다양한 상담 서비스와 분야별 선배 멘토링과 같은 심리사회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 훈련 동안 아동 및 고학년 자녀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양육의 부담을 덜어 주는 등의 세심한 서비스가 특징이다.

웨딩플래너와 웨딩도우미 양성 교육, '뷰티플 웨딩 잡(Job)고(Go)'

2017년 8월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서대문구를 포함한 지역 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웨딩플래너와 웨딩도우미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뷰티플 웨딩 잡(Job)고(Go)'를 진행하고 있다.

아현동 웨딩타운은 한때 200군데가 넘는 웨딩숍이 밀집해 국내 웨딩드레스 수요의 50% 이상을 공급하던 웨딩전문거리다. 그러나 지금은 40군데만 남아 품종 다양화와 가격 거품 제거, 전통과 실력을 바탕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최근 서대문구에서는 검소하고 실속 있게 진행되는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해 '작은 결혼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수한 자원을 활용해 저소득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체에는 사업비로 인턴 급여를 지원해 지역과 주민이 서로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커피 향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삶, '바리스타잡(job)Go, 자립하Go'

"단순한 자격증 취득 과정만이 아닌 취업 준비, 서비스 교육, 행복 습관 교육까지 제공해 카페 취업과 창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활성센터에서 진행한 저소득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2017년 9월 14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5개월간 진행한 '바리스타잡(job)Go, 자립하Go' 사업 참가자들이 전한 소감이다. 커피에 대한 다양한 소양을 갖추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라는 사실에 크게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88시간 동안 바리스타 과정 이론 교육과 실습은 물론 자격증 시험 준비, 취업 면접 관련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매장 근무 시 필요한 응대 서비스 등 커피와 관련된 일을 구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세세한 교육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교육생 16명 전원이 취득했으며, 난이도가 있는 1급 자격증도 27명이 취득(합격률 90%)했다. 또한 이들 중 4명은 실제 커피숍을 창업해 참가자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됐다.☘



커피마루 광주 운암동 공동대표 박희옥(58)씨

"1급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카페 대표 됐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1급 바리스타 자격증에 합격하고, 그동안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 필요했던 다양한 서비스 교육을 받으면서 큰 자신감이 생겼어요. 행복 만들기 교육을 통해 제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게 됐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도 갖게 됐습니다. 4월 1일에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커피숍을 공동 창업하게 됐어요. 전업주부로 살다 경제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일을 시작한 게 6년 전이에요. 그동안 커피숍 창업이라는 꿈으로만 여겼던 일이 현실로 이뤄진 셈이에요. 자립의 발판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천 선학음식문화거리 착한가게·나눔의거리 선포 스물다섯 가게 모여 옹기종기 이웃사랑

동장군이 봄님 오신 걸 시샘이라도 하듯 한기를 내뿜던 지난 4월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내에 있는 선학음식문화거리에서 착한가게·나눔의거리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 행사는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사람들이 착한가게에 참여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다. 선학음식문화거리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이어 인천 지역 두 번째 나눔의 거리로 선정됐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관광지가 아닌 일반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소가 착한가게에 참여해 나눔의 거리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이제 인천시민들은 선학음식문화거리에서 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됐다.

선학동 복지 취약계층 위해 성금 사용

이번 행사는 착한가게에 참여한 25개 업소 점주들과 정명환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이인자 인천 연수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착한가게 참여 업소 대표들은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선포하는 행사에 동참하겠다는 열의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정명환 인천 공동모금회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착한가게에 참여해 주신 25개 업소 점주들에게



정명환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시작은 25개 업소지만
더 많은 동참 확산”

착한가게는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작은 나눔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루는 이웃사랑 실천법 중 하나다. 인천 공동모금회는 나눔과 사랑이 선학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착한가게를 제안했다. 정명환 인천 공동모금회 회장은 “선학음식문화거리가 나눔의거리가 된 것은 인천 공동모금회 직원들과 상가번영회가 함께 발로 뛰며 일궈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많은 이가 기부에 참여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착한가게는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나눔 모델”이라며 “《성경》에도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듯 현재 25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업소가 함께 참여해 선학음식문화거리가 전부 착한가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순 선학동상가번영회 회장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
 일부 되돌려드립니다”**

선학음식문화거리가 착한가게 거리가 되기까지 김미순 선학동상가번영회 회장이라는 숨은 공로자가 있다. 김 회장은 2016년 회장직을 맡으면서 상가번영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까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인천 공동모금회의 제안으로 함께 착한가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선학동이 음식문화거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간판도 교체하고 도로정비에 전선 지중화사업 등 새 단장을 마치고 나니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기 넘치는 곳이 됐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회원들에게 착한가게를 제안하게 됐어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그리 부담스러운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액수일 겁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상가 회원들에게 제안을 하니 25개 업소에서 흔쾌히 참여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많은 분이 참여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여러분이 전달하는 성금은 선학동 복지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제호 연수구청장은 “착한가게에 참여하신 25개 업소 점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직접 실천하는 모범 시민들”이라며 “따뜻한 나눔이 있는 선학음식문화거리가 35만 연수구민, 300만 인천시민, 더 나아가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번에 착한가게에 참여하게 된 이정남 종로순대 대표는 “10여 년 전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 형편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었다”며 “착한가게에 참여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식점 14곳 외에 인테리어·치과의원 등도 참여

이어 착한가게에 참여하는 25개 업소 대표들에게 착한가게 현판을 직접 건네는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정명환 인천 공동모금회장과 이제호 연수구청장 등은 착한가게 대표 사업장인 종로순대와 춘천달갈비, 한우애빠진날 등의 업소 출입문에 착한가게 현판을 달아주었다.

선학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시 대표적인 음식문화거리다. 최근 어려운 경기 여파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지자체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가 됐다. 인천 공동모금회는 선학동에서부터 나눔의 봄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기관과 상가연합회를 찾아가 착한가게 사업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착한가게 사업을 진행해 지난 4월까지 25개 업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참여한 업소는 외식업종이 14곳이며, 나머지 11곳은 인테리어, 부동산, 치과의원, 교육기관 등 업종도 다양하다.

인천 공동모금회는 이번 착한가게 거리 선포식을 시작으로 선학동 나눔봉사단과 함께 착한가게 확장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정기 통장 회의와 상가번영회 회의 등에서 착한가게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착한가게 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

착한ilter_디엠씨

글 홍경기 사진 양수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사회와 상생을 '견인'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발전한다고 믿는 해상크레인 전문 제조업체 디엠씨(주). 이들은 오늘도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꿈꾸고, 함께 발전하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데크크레인 등 고가 해양 장비 국산화 앞장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 언뜻 다르게 보이지만 둘은 일맥상통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과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책임을 다한 기업만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랜 기간 성장할 수 있다.

1988년 8월 동남기업이란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딘 디엠씨(주)(대표이사 김영채)는 조선, 해양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데크크레인, 20톤 호스핸들링 크레인, 플로팅 도크 크레인, 100톤, 30톤 등의 오프쇼 크레인까지 여러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고가 수입 장비를 국산화하고 국책 사업 개발에 이바지하는 관련 업계 선두주자다.



디엠씨(주)는
해상크레인 전문
기업으로 오프쇼크레인,
데크크레인, 유압식
호스핸들링, 굴절,
프로비전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2009년 중량물 및 파이프 랙과 해양공급선으로부터 중량물 이송을 위한 85톤 FPSO 페데스탈 크레인을 개발한 데 이어 진일보한 기술력으로 산학 협력을 맺은 카이스트와 모바일 하버 크레인을 선보인 디엠씨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0톤 BOP 갠츨리 크레인과 60톤 오프쇼 라티스 붐 타입을 시장에 내보임으로써 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입 대체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80% 넘는 임직원 나눔활동에 동참

조선 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해답은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회사가 속한 지역과 거둬들이는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기부를 떠올린 것이다.

기부 결정 과정에 대해 경영지원부 최진석 부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차근차근 단계를 거둬가며 성장하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는 판단이 든 이후 우리 회사가 속한 김해라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거죠.”

또한 그는 “환원의 일환으로 기부를 결정하면서 더불어 직원들이 직접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곳도 알아 보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디엠씨가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은 6,830만 5,011원. 임직원 130여 명 중 100여 명이 기부에 동참하는데, 회사는 직원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5,000원씩 내는 것에 회사 매칭금 100만 원을 더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이들이 낸 기부금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김해시 소재 아동 양육 시설의 아동 용돈 지원과 시설 기능 보강 및 아동 캠프 지원에 사용된다.

최진석 부장은 “기업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경영진의 뚜렷한 의식과 더불어 무엇보다 80%가 넘는 대다수 직원이 동참한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기부가 이어진 배경”이라면서 “회사에서는 기부나 봉사활동에 대해 그 직원들에게 그 어떤 강요나 강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엠씨는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는 기부와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묻는다. 물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럼에도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최 부장 말대로 거의 전 직원이 기부에 동참하는 것은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회사가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엔 육아원으로 현장봉사

기부와 더불어 임직원들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사회복지법인 와이드블유엠 동광육아원으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활동도 해보고 싶은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진행했는데, 초창기 40여 명으로 시작해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늘고 있다. 최진석 부장은 “직원들 모두 회사가 오랫동안 살아 남기 위해서는 속한 지역사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바쁘고 힘든 한 주를 마친 주말임에도 기꺼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을 보면 요즘 아무리 조선 업계 경기가 좋지 않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고 전했다.

지역사회를 걱정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스한 배려 그리고 이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은 디엠씨를 2009년 코스닥에 상장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한편, 2016년 무재해 10배수 수상 및 대통령-철탑산업훈장 인증패를 받은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_경북 울진

글 사진 조혜원(여행작가)

지중해보다 푸른 저 바다에 누워

여기저기서 봄꽃이 꽃망울을 틔우는데, 마음 놓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날씨가 이어진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며 크게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이 봄을 더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울진으로 떠났다.



바다 위를 두벽두벽 135m 등기산 스카이워크

등기산 스카이워크가 올해 3월부터 임시 개장했다. 의상대와와 선묘낭자의 일화를 모티브로 한 선묘룡 조형물이 설치되고, 재정비를 거쳐 4월 말에 정식 개장을 한다. 바닥의 강화유리를 보호하기 위한 덧신을 신고 스카이워크에 한걸음 내디뎌본다. 바다를 향해 쪽 뺨은 135m의 스카이워크는 하늘에 붕 떠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아직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하고 투명한 강화유리 구간은 출렁이는 바다가 또렷이 내려다보인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려온다. 바다가 너무 투명하게 내려다보여 급히 옆 손잡이를 잡는 이들도 많지만, 15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화유리니 겁낼 필요 없다. 68m의 데크 구간, 10m의 스틸그레이팅 구간, 57m의 강화유리 구간과 끝부분에는 둥글게 전망대가 조성돼 있다. 전망대 끝에 서면 시야에 거스르는 것 없이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스카이워크 오른편엔 방금 바다에서 솟아오른 듯한 갯 모양의 바위가 있다. 스카이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모습과 갯바위 전망대를 걸어 바로 곁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또 다르다. 거친 파도에 매일 단련되면서도 날 선 갯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굳건해 보인다.

스카이워크에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출렁다리를 건너 후포등대, 망사정을 차례로 둘러볼 수 있는 등기산 공원으로 이어진다. 아기자기한 마을 위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건넌다. 규모가 그리 큰 교량은 아니지만 나름의 운치가 있다. 다리를 건너 오른쪽 언덕 위로 오르면 후포등대다. 등기산은 해발 64m의 낮은 언덕 같은 산이지만, 등대가 생기기 전 흰 깃발과 봉화불로 배에 길을 안내하던 곳이었다. 작고 소박한 등대지만 무려 1968년에 최초 점등을 해, 50세나 된 마을 어르신이다. 등대 걸엔 어린이 놀이시설과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에 서면 아담한 마을과 후포항이 내려다보인다. 후포등대와 망사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뒷동산의 놀이터이자 바다의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다.

등대에서 마을을 굽어보다 바다를 바라보며 언덕길을 내려오면 망사정이 나온다. 바다를 향한 길 끝에 있는 망사정도 마을과 바다를 조망하기 좋은 포인트다. 잠시 앉아 쉬어가며 가만히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기 좋다. 특히 새해엔 일출을 보기 가장 좋은 포인트라 많은 이가 모이는 곳이다. 망사정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내려오면 등기산 투어가 마무리된다.



들깨 국물만큼 진득한 인심 착한가게 '풍경시골 손칼국수'

울진의 착한가게 '풍경시골 손칼국수'는 울진 남쪽 끝자락에 있다. 대게로 유명한 동네에서, 1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 마을 주민들에겐 들깨 칼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다. 지난 2013년 지인에게 소개받고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시작했다. 풍경시골 손칼국수를 비롯해 울진의 착한가게들에서 모인 성금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의 생계비, 의료비, 난방유 구입비 등으로 지원된다.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아닌데 쑥스럽다며 말을 아끼는 사장님 내외. 하지만 음식에 대한 눈빛을 반짝이며 이야기한다.

울진 동네 주민뿐 아니라 원주나 강원도 쪽에 사는 사람들도 부러 찾아오는 이가 많다. 면발이 굵어서 면을 삶는 데만 15분이 걸린다. 면발이 굵은 만큼 차지고 쫄깃하다. 진득하고 깊은 맛이 나는 국물과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들깨 칼국수뿐 아니라 담백한 두부김치와 쫄깃한 만두도 인기메뉴.

낮시간엔 가게에만 있다 보니 관광지에 살면서도 큰맘 먹고 여행하듯 가봐야 하지만, 얼마 전에 생긴 등기산 스카이워크에 꼭 가보라고 추천해 주는 김진범 사장님. 울진은 바닷길을 따라 드라이브만 해도 멋진 풍경이 계속 펼쳐지는 곳이라고 자랑한다.

대게를 먹을까, 문어를 먹을까 후포 어시장

이제 대게로 유명한 후포의 어시장으로 가보자. 등기산 공원에서 내려와 구불구불 이어진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금방이다. 매년 3월엔 대게 축제도 열리는 곳이다. 대게 축제는 끝났지만 붉은 대게가 김을 풀풀 내며 찜솥에서 찌지고 있는 가게가 줄지어 있다. 후포 앞바다는 대게뿐 아니라 대왕문어,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히는 동해안 어업의 중심지다. 영덕, 포항, 동해, 속초까지 울진 인근도 대게가 유명하지만 그중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은 울진이다. 타이틀은 영덕에 내줬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대게' 하면 울진 후포를 떠올린다.

작은 규모의 어시장이지만 회센터, 갯 잡은 회로 상차림을 해주는 식당, 대게 집, 문어 집까지 알차게 있을 건 다 있다. 대게를 바구니에 수북이 쌓아 올리고 가격을 흥정하는 상인, 어른 팔뚝만 한 문어를 들어 올리며 쫄깃하게 삶아 주겠다는 통쾌한 아저씨, 양옆에서 유혹의 외침으로 활기 가득한 시장을 거닐면 무얼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2

- 1 착한가게 풍경시골 손칼국수의 인기 메뉴인 '들깨칼국수'
- 2 2013년부터 착한가게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김진범 사장
- 3 울진의 자랑인 대게가 수족관에 가득하다.
- 4 등기산 스카이워크를 걸다 보면 자연스럽게 탄성이 나온다. 탁 트인 바다 전경에 감탄하고 발 아래 풍경에 오금이 저리기 때문이다.
- 5 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백년손님>으로 유명해진 후포리 벽화마을. 사계절 꽃이 활짝 피어 있다.



3



4



‘백년손님’ 남서방을 찾아라 후포리 벽화마을

어시장에서 든든히 배를 채웠다면 천천히 마을을 거닐 차례다. 작고 조용한 마을이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프로그램 <백년손님> 덕분에 알록달록한 벽화마을이 됐다. 드라마세트장보다 더 흥미롭고 정감 가는 마을 골목길에는 TV에서 보던 마을 어르신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남서방이 머리를 깎았던 오래된 이발관, 장인·장모님이 사는 집, 마을 골목 가득한 벽화는 그림인지 삶인지 구별할 수 없이 공존하고 있다. 2층 건물 벽면에 가득 그려진 이발소 사장님의 벽화 옆에 그림 속 사장님이 앉아 나른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산책은 어느새 동네 이웃이 된 기분이 들게 한다. 사람 좋게 웃는 주민들의 얼굴과 골목 가득 활짝 핀 꽃 벽화가 마음을 열게 한다.

남서방 덕분에 후포리 마을은 사계절 꽃이 활짝 피어 있는 화사한 동네가 됐다. 작은 마을에서 방송 촬영을 해서인지 마을 곳곳에 남서방이 다녀간 장소라고 내걸었다. 백년손님이 마을에 전국 방방곡곡의 손님을 모시고 왔다.

여행정보

풍경시골 손칼국수
주소 경북 울진군 후포면 동해대로 308
문의 054-787-8545
운영시간 10:00~20:00

등기산 스카이워크
주소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계로 287-11
문의 054-789-5860~2(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운영시간 09:00~18:00

후포 어시장 회도매센터
주소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계로 169-71
연락처 054-787-7757

대개 맛있는 대게빵

어시장과 ‘백년손님’ 벽화마을을 둘러 보려면 마을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는 울진의 상징 대개를 넣은 간식, 대게빵을 파는 작은 가게가 있다. 붕어빵엔 붕어가 안 들었지만 대게빵엔 대개가 들었다.



빵 반죽에 대게살과 대게가루를 넣어 찐듯하면서도 바삭하다. 호두가 든 것, 블루베리가 든 것 두 가지 맛이 있고, 생크림을 별도로 판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생크림을 찍어 먹으면 ‘단짠’의 조화가 완벽해진다. 바다 향을 가득 품은 대게빵을 오몰거리며 한 손엔 가족들에게 줄 선물용 빵을 들고 뿌듯하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 🍩



해양쓰레기 치워 쪽빛 청정바다로

청정해역을 자랑하던 통영 앞바다가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 위에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부유쓰레기가 떠다니고 바닷속은 그물, 로프, 통발 등 어구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쓰레기를 청소하러 어민들과 학생들이 나섰다.

삼성전자·모금회, 견내량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이 있었던 견내량은 통영과 거제를 잇는 거제대교 아래의 좁은 해협이다. 이곳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가고 있다. 국가보호종인 해조류 '잘피'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다.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8년 나눔과 꿈 사업을 통해 통영 거제환경운동연합의 견내량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 토요일 아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화삼어촌계원들, 통영 지역 4개 고교 환경동아리 소속 학생 등 40여 명이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선착장에 모였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들이 함께 모여 견내량의 해양쓰레기를 청소한다. 이날은 인근 무인도인 방화도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부유쓰레기는 겨울이 되면 북동풍의 영향을 받아 방화도에 쌓이기 때문이다. 이날 하루 수거된 쓰레기만 마대자루 200개, 커다란 스티로폼부표 70개가 들어가는 그물망 5개가 나왔다. 지옥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지난 3월부터 매주 치우고 있는데 아직 10%도 처리하지 못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방화도에 쌓여 있다"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방화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플라스틱과 폐어구다.

이 쓰레기가 물에 떠 있으면 부유쓰레기, 바닷속에 있으면 침적쓰레기다. 이런 해양쓰레기가 비단 통영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해안가와 연안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정화활동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페스티로폼 연 수십만 개 발생... 해저쓰레기도 심각

통영연안은 국내 굴과 멍게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이곳 바다에 떠 있는 스티로폼부표가 약 1,000만 개라고 한다. 스티로폼부표는 수명이 3년 정도라 한 해 330만 개가 새롭게 교체된다고 보고 있다. 통영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년에 발생하는 폐부표는 67만 개이며 37만 개가 수거돼 처리된다. 약 45%는 방치돼 해양쓰레기가 된다. 박차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스티로폼부표는 통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세하게 쪼개져 이를 플랑크톤이 섭취하게 되는데 플랑크톤을 먹는 해산물에까지 영향을 미쳐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난다"며 "그런 해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해양침적쓰레기다. 통영의 경우 부유쓰레기보다 이 침적쓰레기가 더 심각하다고 한다. 2016년 3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통영의 5대 항구를 수중 촬영을 해보니 태풍 등으로 연안에 밀려든 폐통발과 폐그물, 폐로프, 멍게 봉 등 폐어구가 엄청난 양이 쌓여 있었다.



2018년 '나눔과 꿈' 사업

모금회 지원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전용 바지선 건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올해부터 크레인을 장착한 해양쓰레기 수거 전용 바지선을 건조해 본격적인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8일 이들은 견내량 아래에 있는 유대도 인근으로 침적쓰레기 제거 작업을 나갔다. 전문 잠수사가 크레인에 로프를 걸어 끌어 올리자 바위만 한 폐그물이 떨어 올라왔다. 박차수 사무국장은 “해양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폐어구가 바다 밑에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다”며 “매주 수요일 작업을 하는데 한 달에 10여 톤을 제거하고 있다”고 했다. 해양 침적쓰레기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조류가 심해 전문 잠수사라고 해도 바닷속 작업이 쉽지 않다. 때문에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계획되어 있는 작업은 총 36회다. 내년엔 인근 어촌마을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지역도 넓힐 계획이다.

지옥철 공동의장은 “정부의 해양쓰레기 정책 관련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해양쓰레기는 연안에 더 심각한데 이는 방치하고 먼 바다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 옥철 공동의장은 “앞으로 견내량 정화활동을 통해 연안해양쓰레기의 현실을 알리고, 어민들이 정화활동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낼 수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



“바다는 후손들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

지옥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옥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통영이 삶의 터전인 통영 사람이다. 화삼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어민이기도 하다. 바다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바다의 오염을 가슴 아파한다.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를 방치하기보다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2014년부터 정화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민들에게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함부로 폐어구를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정화활동 참여 수당을 지급해 경제적인 자립도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연안해양쓰레기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바다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재미로 배우는 나눔과 배려

아이들은 놀이가 밥입니다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서로가 보낸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밥상머리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인성을 배우고 몸과 마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가족과 함께 먹는 잘 차려진 밥상처럼 놀 장소, 놀 시간, 놀 친구들이 부족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매일 어떻게 하면 놀이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처럼 '서로의 감정, 생각,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놀이밥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경쟁보다는 재미... '놀이밥' 함께 나눠 먹기

맛있는 것도 혼자 먹기보다 나누어 먹으면 더 맛있죠?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혼자 놀기보다는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놀아보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지나친 승부욕, 무기력, 경쟁, 싸움 등의 모습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많이 놀아보지 못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경쟁 밥상보다는 협력 놀이밥이 좋겠죠.

아이들과 많이 했던 협력놀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성공하는 눈치 게임'입니다. 눈치 게임 많이 했던 TV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의 유행어가 있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눈치 게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학급 구성원 모두가 성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반은 24명이에요.

이 놀이를 처음 시작하면 승부욕 넘치는 아이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먼저 '1' '2' '3' 한 명씩 일어서기 바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쉬운 표정과 안타까운 탄식이 나옵니다. 동시에 일어섰기 때문이죠. 원래 눈치 게임의 규칙이었다면 동시에 말한 친구들은 탈락입니다. 그러나 탈락이라는 실패의 경험보다는 함께 끝까지 성공하는 경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3번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가 사라지면 내일 태양이 다시 뜨듯 다음날 새로운 기회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24명이 펼치는 눈치 게임 성공하는 법

아이들과 이 놀이를 시작하고 5일쯤 되었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어제는 10명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14명으로 끝났어요. 4명 더 늘어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아쉽게 7명까지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놀이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비결, 어떻게 하면 내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아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먼저 말한 친구들이 그다음 기회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오늘 첫 번째에서 내가 먼저 말했다면 다음에는 말하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1학년 아이의 답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놀이를 하더라도 질문하고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김치가 숙성되어 맛있어지듯 아이들의 놀이도 익어갔습니다. 그러다 23일 만에 성공했을 때, 아이들의 표정을



모두가 성공하는
눈치 게임

구성원 모두
원으로
둘러앉는다.

한 명씩
숫자를 말하며
일어선다(이때
오로지 눈빛,
얼굴 표정만
살핀다. 손을
들어 사인 보내면
안 된다).

성공한 친구는
일어서 있다.

두 명이 동시에
숫자를 말하며
일어서면 실패.
'1'부터 다시
시작한다.

매일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공했다는 경험! 함께 힘을 모아서 끝까지 성취하는 경험을 맛보았을 때 거기서 느낀 감정과 배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함께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느낌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배려를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없는 놀이를 진짜 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즐거운 놀이의 비결은 솔하게 저보고 이겨보는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놀이를 하다가 싸우거나 속상한 일이 생길 때 교사가 중재하기보다는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사과할 기회,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놀다가 잠깐 쉬거나 끝날 때 칭찬하고 싶은 친구나 고마운 친구, 성공의 비결, 불편했던 행동(행동에만 초점), 해결 방법 등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아이들의 변화

이렇게 노는 과정 속에서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아이들이 변합니다. 친구의 의견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강한 불만 표시를 했던 아이들도 놀이를 통해 친구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친구의 어떠한 모습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즐거운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함민복 시인의 시가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가면서 이해하는 ‘나눔’의 과정 속에서, 다름을 존중하는 ‘배려’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경계에 꽃을 심고 있습니다. 내 꽃밭을 가꾸면서 다른 이의 꽃밭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면서 ‘아름답다’ ‘향기롭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 꿈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밥을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하고 싶은 일’ ‘내가 싫어하니까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어’라고 부탁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일’ 등을 배워갑니다.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 그 작은 틈에서도 꽃이 피어납니다. 부딪치는 관계에서도 해결의 과정을 통해 꽃이 핍니다. 오늘도 신나게 놀이밥을 먹으며 자신의 꽃을 피우고 있을 아이들을 격려해 주세요. ❀

1시민 1나눔·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착한가정·착한나눔이 무르익는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행복도시'라고 부른다. 젊고 역동적인 도시인 만큼 개인 중심의 삭막함이 감들 수 있기에 '행복'의 씨앗을 담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나눔이라는 거름을 주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갔다.

나눔을 연결 고리로 시민 아이덴티티 형성

세종특별자치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다. 상당수의 정부 부처가 이전을 끝마쳤고, 도시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충청남도 연기군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 일부, 충청북도 부용면 일부가 편입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다. 이곳 주민들은 각기 다른 생활권에서 살았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대전광역시, 천안시, 공주시 등 각자 편한 도시를 오가며 생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종시'라는 이름으로 한곳에 모이게 된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새로 유입된 사람들과 원주민들 간의 화합은 그리 간단히 풀릴 문제가 아니다.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는 '우리'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나눔문화'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명품 도시! 명품 나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촌회 시장, 착한가정 1호 가입... 명사들 릴레이 가입

세종 공동모금회는 나눔문화 전파의 시작점으로 착한가정이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세종시는 이제 6세 된 신생도시다. 타 시도에 비해 기업이 많지 않다. 기존에 자리하던 제조 중심의 공장이나 농장 외에는 규모가 큰 대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환경적으로 기업의 고액기부를 모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미경 세종 모금회 팀장은 "신생 도시다 보니 다른 시도에 비해 환경이 좋지 않다. 기부의 변수가 많은 기업보다 기부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하는 개인기부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나눔문화를 정착시켜 걸만 화려한 세종시가 아니라 속도 따뜻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착한가정 캠페인이다"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세종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말 착한가정 캠페인을 집중으로 전개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세종시의 명사들을 찾아가 착한가정 가입을 권했다. 지역 명사들이 술선수범해 나눔에 동참을 하면 나눔 바 이러스가 점차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1호 명사 착한가정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가정이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이춘희 시장에게 착한가정을 제안했을 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가입을 했다는 후문이다. 그 뒤를 이어 김철문 세종경찰서장이 착한가정에 가입해 나눔의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최교진 세종교육감,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이원재 행복청장 등 지역의 주요 명사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세종시의 원들도 상당수 착한가정에 가입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62개의 착한가정이 등록을 마쳤다. 이 중 절반 가까이 되는 30명이 명사들이다. 김동후 세종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간혹 고액기부자나 기업모금을 확산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미래의 나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개인기부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사들의 착한가정 가입에 발 벗고 나섰던 홍영섭 세종 공동모금회장은 “정무부지사 등을 거처며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한 경험을 살려 지역의 사회지도층들에게 나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그 결과 지역의 명사들이 참여하고 그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도 관심이 높아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 공동모금회 직원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사회 안전망 구축도

세종 공동모금회의 두 번째 미션은 지역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를 살피기 위해 세종 공동모금회는 세종시 17개 모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합모금을 체결해 사회복지 재원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이나 사회복지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읍·면·동사무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세종 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연합모금을 홍보해 지난해 읍·면·동별 1,000만~2,000만 원의 성금이 조성됐다. 또한 정기기부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매년 기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착한가게도 124곳으로 도시의 규모에 비해 적지 않다.

현재 세종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 금남면에서는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고, 소정면은 빨래방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옷이나 이불을 빨아 건조까지 해 배달해 주기도 한다. 조치원읍은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찬!찬!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읍·면·동별로 실행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들은 앞으로 복지재원이 증가되면 더욱 다양하고 효율성 높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품시민답게 '1시민 1나눔 갖기 운동' 전개

세종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신도시로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곳에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있다. 배분을 담당할 김애경 세종 공동모금회 주임은 "세종시는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빚어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어느 도시보다 큰 곳"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이 좌절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장학금이나 지역아동센터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공동모금회는 앞으로 명품도시에 사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나눔을 실천하는 명품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1시민 1나눔 갖기 범시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CMS 정기기부, 착한가정, 착한가게, 나눔리더, 나눔리더스 클럽, 착한일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등 작은 금액의 개인 정기기부부터 고액기부까지 개인에 맞게 기부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시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맞는 기부를 찾아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는 매뉴얼 책자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김동후 사무처장은 "자신에게 맞는 기부 상품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연합모금에 동참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주민 참여가 높은 마을에는 착한마을 인증패를 전달해 '나눔 1번지'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 금남면에서는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고,
소정면은 빨래방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옷이나
이불을 빨아 건조까지
해 배달해 주기도 한다.
조치원읍은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찬!찬!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후 세종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행정의 중심을 나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세종시는 젊음의 도시입니다. 평균 연령이 36세거든요. 나눔문화를 전파하고 확산하며 협력해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통이잖아요. 주민들과 소통이 잘 돼 다양한 의견들을 빠르게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 세종시의 강점입니다. 앞으로 나눔 중심의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동후 세종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19년 모금회에서 활동을 하며 여러 지역을 근무했지만 세종시만큼 젊고 역동적인 도시는 없다고 확신했다. SNS를 통해 공동모금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눔문화를 공감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기업이 많지 않아 기부금이 있어 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기부자들이 그 빈틈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화합 이끌어 내는 키워드가 바로 ‘나눔’

김동후 사무처장이 세종시로 발령받아 왔을 때 처음 가졌던 화두는 화합이었다.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직장인 등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과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조화롭게 융화되어 하나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김 사무처장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했다.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눔이야말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잖아요. 나눔으로 하나 되는 도시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죠.”

세종 공동모금회가 착한가정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이 늘면 나눔으로 도시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도시다. 지난해만 인구가 5만 명이 증가했다. 조치원을 주민이 5만 명이니 새로운 읍이 하나 생긴 것이다. 현재 30만 명의 인구가 개발이 완료되면 80만 명의 대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종시는 우리나라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부청사가 있어 행정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나눔도 중심이 될 겁니다. 행정도, 행복도, 나눔도 중심인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세종 공동모금회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 탄생 똑똑한 계획기부로 뿌리내려야

50억 원의 '기부자조언기금(DAF·Donor Advised Fund)' 탄생 소식에 깜짝 놀랐다. '배달의민족' 창업자 김봉진 (주)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최근 재단 설립 대신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많다.

재단 설립 필요 없어... 세제 혜택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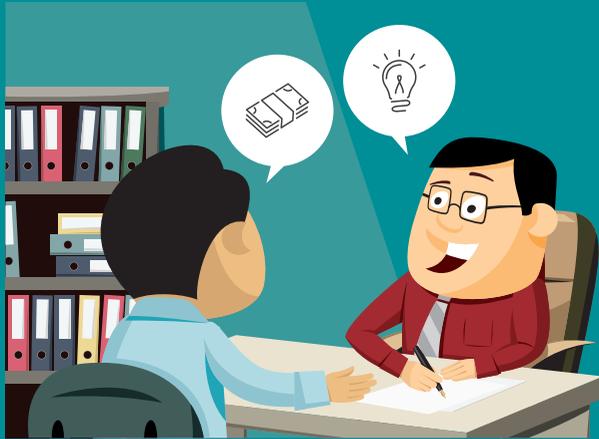
기부자조언기금은 재단을 설립하지 않아도 재단 같은 효과가 있다. 김봉진 대표가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기금'을 만든 것처럼 기부자가 자선단체의 펀드에 기부하고, 운영이나 배분을 조언하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도 받고, 재단 설립·운영과 같은 까다로운 절차도 필요 없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가장 보편화된 계획기부(planned giving)의 한 형태다.

2017 DAF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의 기부자조언기금은 28만 5,000개에 달하며 230억 달러(24조 원)가 기부됐다. 물론 이번 한국형 기금과 미국에서 일반화된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다. 미국에선 수백억, 수천억 원 짜리 기금이 많아, 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하면서 생기는 수익이나 원금을 사업비로 쓴다. 하지만 이번 기금은 금융회사가 돈을 굴리지 않고 모금회가 직접 기금을 관리해 안정성을 높였다.

세계 최대 자선 자문기관인 '록펠러 자선 자문단' 멜리사 버먼(Melissa Berman) 대표는 몇 년 전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부 트렌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더 적극적으로 기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혹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이들의 기부 패턴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김범수·이해진·이재용 등 벤처 창업가 1세대 5명이 함께 벤처 필란트로피를 표방하며 만든 'C프로그램'은 재단처럼 거액의 자산을 쌓아두지 않고, '캐피털 콜(Capital Call·필요할 때마다 자금 조달)' 방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사업비를 출연한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 돈만 기부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동원해 참여한다. 한국 또한 이 같은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기부자조언기금' 미국에선 연 230억 달러 기부

하지만 한국에서 기부자조언기금은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이나 다름없다. 활성화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의 경우, 기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맞먹는 3,900억 달러(417조 원)인데 이 중 개인기부가 72%에 달한다.(Giving USA 2017)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양한 기부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금융회사와 연계돼 있고, 세금 혜택도 폐놓을 수 없다. 기부자조언기금뿐 아니라, 기부연금(개인이 현금이나 자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여생 동안 연금 형태로 일정 소득을 보장받는 형태)도 있고, 자선신탁도 있다.



미국자선기부협회(ACGA) 린지 라폴(Lindsay L. Lapole) 회장은 “미국에선 지난 10년간 계획기부를 컨설팅하는 전문가 그룹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선단체의 전문성도 쌓이고 자산 계획과 모금 기술을 결합한 기부 컨설팅 시장도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금융과 결합된 기부상품이 무척 드물고, 은행이나 증권 등도 큰 관심이 없다.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기부를 활성화

화하기 위해, 기부자조언기금을 신한은행과 함께 마련했고 제1호 출연자가 생겼지만 그 이후 흐지부지된 것도 은행권의 비협조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기부자조언기금이 제대로 확산되려면, 기존에 있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 잠재 고액기부자들을 대상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성공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너와는 다른 초고액기부... 전문성 있는 인력 키워야

사실 한국의 고액기부자들은 대학이나 병원에만 적극 기부해 왔을 뿐, 사회복지 영역에는 별로 없었다. 또 자신이 출연한 재단만 만들어놓기만 할 뿐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사례도 많다. 아름다운재단의 ‘민간공익재단 기초연구’(2012)에 따르면, 4,582개의 재단 중 자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국제공공시는 33.2%만 하고 있었고, 2차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36.9%만이 운영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공익재단 운영과 현황에 대해 공식 접근할 자료가 없을 정도로 운영의 영세함을 보여준다. 합병과 청산절차 또한 까다롭고, 청산될 경우 국고에 귀속되다 보니 기부자들이 이를 꺼린다. 때문에 이 같은 휴면 재단의 자산을 기부자조언기금으로 흡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린지 라폴 회장은 “미국에서도 의회가 개인 출연재단이 세제 혜택을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재단 출연이 어려워지자, 자선단체에 유산을 기부하는 계획기부가 늘어났다”며 “1986년 기부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세금 공제가 대부분 철회되자, 절세 혜택을 원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계획기부가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기부자조언기금은 아너 소사이어티와는 다른 초고액기부자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운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초고액을 기부했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사항도 까다롭다.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지 않으면, 행정비용이 오히려 초과 발생할 수도 있고 기부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관건은 잠재적 기부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는 믿음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키워야 한다. ▲

결혼식 비용 아끼고 또 아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니 기쁨이 두 배



‘나눔결혼식’으로 하나가 된 민병호 · 김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소개하려고 하니 조금 쑥스럽네요. 우리는 지난해 12월 17일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눈만 마주쳐도 꿀 떨어지는 달달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럽다고요? 얼른 결혼하세요^^.

‘나의 나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요. 우선 우리 나눔결혼식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결혼을 앞두고 아내에게

부탁 한 가지를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치레 결혼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나눔결혼식을 하면 어떨까요. 워낙 마음씨 착한 여자라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나눔결혼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 비용을 아껴 기부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예식장 비용을 아끼려고 평일에 식을 올렸어요. 웨딩드레스 비용을 아끼고, 폐백도 하지 않았어요. 주례자나 사회자 사래비도 양해를 구해 아꼈고 결혼식 화환을 쌀로 받았어요. 이렇게 모인 돈을 경남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하객들도 우리의 취지를 듣고 적극 지지하고 축복해 주어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포항시장님께서 나눔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더 풍성히 나눌 수 있었어요. 결혼식 때 들은 쌀은 총 150kg이고, 라면도 320개나 됐죠. 모두 무료급식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버는 돈을 우리를 위해서 쓰기보다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젠 나눔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행복일 겁니다. 2012년부터 대한노년봉사회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매년 3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연말에는 연탄 2,000장 기부도 해왔고요. 포항 지역의 아동센터 한곳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포항제철소장님이 제가 봉사활동을 하는 무료급식소를 우연히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서 저를 보시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 포스코패밀리 봉사왕 신청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포스코캠트에 다니거든요. 소장님이 직접 챙겨주신 거라 안 할 수도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수만 명의 포스코 패밀리 중에 제가 덜컥 봉사왕으로 선정됐죠. 얼떨떨했습니다. 그 뒤로 포항시장상, 포항시의회의장상, 경북도지사상 등 상복이 터졌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상도 받고 좋기는 했지만 상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니 오해 말아주세요.

아내도 근무하는 병원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이제 둘이 함께할 수 있어 더 행복합니다. 아니 셋이겠네요. 가족이 한 명 더 늘거든요. 7월이면 출산을 합니다. 태명이 ‘호수’인데요. 호수처럼 맑고 깊고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우리 세 식구 앞으로는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하게 잘살게요. 응원해 주세요. 🍀

임종한 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고독사 장례지원 4,500만 원 기탁

임종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안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지난 4월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고독사·무연고사 장례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500만 원을 기부했다. 임종한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찾아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아버지 고(故) 임흥달님의 이름으로 '나눔리더' 인증패를 받았다.

이날 전달된 성금 4,500만 원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사장 김상현)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기탁받은 성금을 무연고 저소득층 추모 지원, 웰다잉 교육, 작은 장례조단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고 본 사업의 의미를 담은 작은 책자한 권을 발간하기로 했다.

임종한 상임대표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평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 아버님 유지에 따라 조의금 일체를 무연고 장례를 위해 기부하게 됐다”며 “고독사와 무연고사 등의 쓸쓸한 죽음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리더'는 공동모금회에 100만 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거나 1년내 기부하기로 약정한 개인 중·소액 기부자를 위한 모금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기부자를 모집하고 있다.

저소득층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사업 모금회, 서울시 등 4개 기관과 협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9일 서울시청에서 SK E&S, 서울시, 환경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미세먼지에 취약한 '저소득층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저소득층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공동모금회, SK E&S 및 환경재단이 시행한 것으로, 총 25명을 선정해 치료비 및 천식유발



인자를 제거하는 맞춤형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공동모금회 등 5개 기관이 민관협력 확대를 통해 30명을 추가 선정해 5월부터 총 55명의 '저소득층 소아천식환자' 아동에게 월 25만 원 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만 18세까지 지속 치료로 완치율을 높이기로 했다. 매년 지원 아동을 확대해 지원대상도 넓힐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 저소득층 아동 척추건강 위해 기부금 전달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4월 11일 임직원들의 기부금 3,000만 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자생의료재단 임직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모은 것으로, 서울 공동모금회를 통해 신체적 불균형이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척추의 바른 성장을 위한 놀이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해 신체·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쓰이게 된다.



임천복 소담연구소 소장, 청각장애인 소리찾기 성금 기탁

임천복 소담연구소 소장은 지난 4월 18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서울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며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임천복 소장은 “은퇴는 했지만 예전 의료장비 분야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불평등에 놓인 장애인분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될 기부금은 청각장애인의 소리 찾기와 사회적응,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주택개보수 지원 성금 3억 6,000만 원 기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4월 2일 저소득가정 주택개보수 지원 성금 3억 6,000만 원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강학봉 경기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전달한 성금은 경기도 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에 전달되어,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별 사회복지지 시설·기관 간담회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본부장 김경희)는 지난 4월 4일 경기 고양시를 시작으로 4월 25일 구리시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별 사회복지지 시설·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내 각 분야의 주요 사회복지지 시설·기관들이 참석해 분야별 복지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공동모금회와의 협력적 상생모형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전국 리사이클센터, 세탁기 200대 전달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는 전국 리사이클센터와 함께 밀양시청 광장에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세탁기(15kg) 200대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식은 최근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극복, 시민 화합을 위해 전국 리사이클센터에서 추진했다. 행사에는 가수 김경호·최재훈, 개그맨 윤정수, 스포츠 스타 김병지·송종국·이천수·김동주·박명환 등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착한 창원시 만들기' 업무협약 맺어

지난 4월 9일 창원시(시장 안상수)가 경남 공동모금회와 '착한 창원시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 창원시 만들기' 사업은 지역 내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기업 등 지역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 관리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기후원금, 생활안정자금,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관 복지협업을 통해 복지 시너지 효과 증대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착한가게 2,500호점 돌파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에서 추진하는 '경북 착한가게'가 2,500호점을 돌파했다. 경북 공동모금회는 지난 3월 21일 의성군 영상회의실에서 착한가게 가입식을 갖고 경북 2,500호점 탄생을 축하했다. 2,500호점으로 선정된 김만연 천치토목설계 대표는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에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히 관심 갖고 온정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첫돌 맞은 경산 거주 정운우 군 부모 축하금 기부

지난 3월 25일 첫돌을 맞은 정운우 군의 부모는 첫돌을 기념해 친척들로부터 받은 축하금 32만 원을 경북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정군의 부모는 "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뜻에서 첫 생일을 맞아 '나눔'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혜영 사무처장은 "부모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성금이라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기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주



닷넷소프트, 저소득층 학생 위해 2,000만 원 지원

(주)닷넷소프트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금 2,000만 원을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지원청 교육감과 최병준 닷넷소프트 대표는 지난 3월 28일 교육감실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금은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100명에게 교통카드로 지원된다. 1인당 지원금은 한 학기 동안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업타운홀릭, 1,000만 원 상당 여성리류 530점 기부

업타운홀릭(김현아 대표)은 지난 4월 17일 광주 공동모금회에 여성 의류 530점(1,0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업타운홀릭(www.uptownholic.com)은 누구나 즐겨 입을 수 있는 여성 의류 전문 쇼핑몰이다. 김현아 업타운홀릭 대표는 "지역사회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과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전했다. 업타운홀릭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여성 의류 9,970점을 기부했다.

대구



대구광역시새마을회와 착한대구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는 지난 3월 13일 대구 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새마을회(회장 김옥열)와 착한대구 만들기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새마을회와 대구 공동모금회는 국제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시민의 나눔정신을 계승하고 대구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구 사랑의열매 정기 기부 캠페인인 '착한대구캠페인 착!착!착!착!'을 활성화시키기로 약속했다.



한국가스공사, 저소득가정 위한 새 보금자리 제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는 지난 4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 호목동에서 '행복동지 주거안정 디딤돌사업' 입주식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대구 공동모금회와 대구동구청·한국가스공사가 함께 동구 지역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덜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폐·공가를 수리해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 4,000만 원, 2017년 6,000만 원, 총 1억 원을 기탁해 5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지원했다.



한국조리사협회 대전지회, 한식세계화축제 수익금 기부

한국조리사협회 대전광역시지회(지회장 박병식)는 지난 3월 26일 진행되었던 제3회 로컬푸드 한식세계화축제 수익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대전시립체육재활원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 현장에서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에 기탁했다. 한국조리사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회원들은 복지관, 복지센터 등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점심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3동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 전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선도)는 지난 4월 18일 서구청 다목적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222만 원을 대전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지난 4월 7일과 8일 둔산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14개 자생단체가 연합해 실시한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 전액이다. 박용훈 대전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성금을 기탁한 둔산3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자생단체 회원들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부산의료원 발전후원금 사회공헌사업 협약

부산의료원(원장 최창호)은 지난 3월 26일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와 저소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의료원 발전후원금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입원 환자 지원에 국한되었던 사업을 저소득층(중위소득 80% 이내) 및 무연고자, 행려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액도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故 이수웅 부산 25호 아너 가족 1,000만 원 기부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25호 회원인 이수웅 허니직물·수광무역(주) 대표가 지난 3월 2일 지병으로 별세, 장례를 마친 가족이 고인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부산 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 부인 김종남씨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던 남편의 마음을 기리고 싶었다"며 "생전 지병으로 눈이 안 좋았는데 눈이 아픈 분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울산 공동모금회, 2018 아너 총회 열어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는 지난 3월 20일 롯데시티호텔에서 2018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 지역 아너 30여 명이 참석해 회원 간 친목 도모, 향후 클럽 발전을 위한 논의, 임원 선출 등을 진행했다. 울산 아너 클럽에는 82명이 가입해 있다. 또한 울산 아너클럽은 개인기부뿐 아니라 태풍 차바 성금 기부와 같은 클럽 단위 나눔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울주군·중구에 5억 원씩 기부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는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4일 울주군청을 방문해 성금 5억 원을 기탁했다. 또한 지난 4월 9일에도 중구청을 찾아 박성민 중구청장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 백순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은 "지역기업으로서 수익을 함께 나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고자 올해도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성금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 장학 멘토링 봉사 실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명환)는 지난 4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소년소녀 가장 및 탈북가정 아동을 후원하는 '삼성바이오 드림플러스 장학 멘토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을 초청, CEO와 임직원들이 진로 등을 멘토링해 주는 한편, 소정의 장학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인천시설공단,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후원금 전달

인천시설공단은 지난 4월 16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천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장애인 선수들이 부족한 운동용품에 지장을 받지 않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설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으로 조성됐다. 공단은 장애인 체육발전 후원과 함께 매주 장애인 등산도우미 활동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IT꿈나무 위한 이웃사랑 실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지난 4월 11일 IT꿈나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200만 원을 KISA 경영기획본부장실에서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에 전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광주·전남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보호시설 아동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생활비 및 의료비를 지원해 왔으며, 빛가람 산타원정대 구성을 통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전남치과의사회, 이웃돕기 성금 1,150만 원 기탁

전남치과의사회(회장 홍국선)는 지난 4월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호남권 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에서 전남 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1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전라남도 치과의사 회원들이 자발적인 폐금속(메탈, 아말감 등) 기부와 성금으로 모인 것이다. 홍국선 전남치과의사회 회장은 “전남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산방식당 제주점, 개업 기념일 매출액 전액 기부

제주식 밀면과 수육으로 유명한 산방식당 제주점(대표 김형섭)은 개업 6주년 기념으로 벌인 하루 반값 나눔행사 매출액 1,035만 원 전액을 지난 3월 26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와 제주글로벌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보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산방식당 제주점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4,400여 만 원의 수익금을 전달해 왔다.



문화꿈터, 버스킹 공연 모금액 백혈병 어린이 가정에 기부

제주 지역 직장인 및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통기타 동아리 문화꿈터(대표 최재근)는 지난 4월 5일 제주국제부두에서 버스킹을 통해 모금한 200만 원 전액을 제주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문화꿈터는 매주 일요일 오후 제주여객터미널에서 버스킹 공연을 벌여 모금한 성금을 백혈병 소아암어린이,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5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세종



정찬 아너,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세종시 대표 나눔천사 정찬 정피부비뇨기과 원장(세종 5호 아너 회원)은 지난 4월 14일 세종우리신협 3층 회의실에서 '사랑의 다리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정찬 원장은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찬 아너는 지금까지 세종 공동모금회에 총 6,500여만 원의 성금을 기탁해 지역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HS솔라에너지, 장애인 돕기 성금 2,500만원

(주)HS솔라에너지(대표 송영철)는 장애인의날을 맞아 지난 4월 17일 장애인돕기 성금 2,500만 원을 세종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세종시청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송영철 HS솔라에너지 대표이사, 김동후 세종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한국교통장애인 세종시협회 장애인 휠체어 수리사업 이동차량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충북



츄추는북카페, 충북 모금회와 공익연계마케팅 협약

(주)츄추는북카페(대표 김윤모)는 지난 4월 5일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와 충청북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익연계마케팅(CRM) 협약'을 체결했다. 츄추는북카페는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는 보호작업장과 연계되어 있으며, 장애인 및 이주여성 등을 고용해 원두를 유통·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츄추는북카페는 이 협약을 통해 원두 판매 수익금의 3%를 충북 공동모금회에 정기기부하게 된다.



충북 음성군 착한가게 400호 돌파

충청북도 음성군 내 착한가게가 400호를 돌파했다. 충북 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13일 '음성군 착한가게 400호' 현판을 뉴페이스안경원 유창성 대표에게 전달했다. 유창성 대표는 "평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며 "착한가게를 통해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내 착한가게는 지난 1월 1,000호를 돌파했으며, 음성군에 있는 400개 착한가게는 연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



‘전주다움 스토리펀딩 후원릴레이’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해 돕는 후원릴레이가 시작된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전주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서양열), 꽃밭정이노인복지관(관장 김욱) 등과 함께 ‘전주다움 스토리펀딩 후원릴레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과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운영위원회 열어

전북 공동모금회는 지난 3월 23일 전북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순애 전라북도단장을 비롯해 각 시군별 봉사단장 등 총 32명이 참석해 나눔봉사단의 운영세부계획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김미순 신임 전주시봉사단장은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껏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건설기계강원도회, 저소득층 학생 위해 300만 원 전달

대한건설기계강원도회(회장 남태철)는 지난 4월 8일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만우)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건설기계 강원도회는 평소 강원도에서 꾸준한 사회공헌을 펼쳐오고 있다. 남태철 회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려운 학생을 돕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 산불 이재민 화재복구비 긴급 지원

강원 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4일,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화재복구비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3월 28일 새벽에 발생한 고성군 산불은 40ha를 태우며 건물 17동이 화재 피해를 당했다. 이 중 집이 전소된 5가구에 대해 긴급지원비를 각각 300만 원씩 지원했다. 한만우 강원 공동모금회 회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육군본부,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업무협약

육군본부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는 지난 4월 2일 육군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관형 충남 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현역장병 전체가 참여하는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금되는 기금은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육군장병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한다.



도원이엔씨, 성금 2,500만 원 전달식

성우중 (주)도원이엔씨 대표(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는 지난 4월 23일 충남 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산석림사회복지관과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성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우중 도원이엔씨 대표는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야말로 서산시의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큰 거름이 될 것"이라며 "후원금으로 잘 운영하여 지역사회를 보듬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기부
#9004
(한 통에 2천원)

ARS기부
060-700-1212
(한 통에 2천원)

온라인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기부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기념일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는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자 클럽입니다.

서울 230호

윤성철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나눔은 ‘공감과 감사’라고 생각한다.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하여 공감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됨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118호

김수성 오케이포인트마트 대표



“도움 주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아너에 가입하게 됐다. 나의 나눔이 많은 분

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 대구가 따뜻한 사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광주 77호

최진숙 신진정밀(주) 대표



“지역사회에서 받은 관심과 사랑을 되돌려줄 차례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 119호

박원복 (주)일류종합건설 대표이사



“평소 기부와 봉사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아너 기부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투명하게 지원되기를 희망한다.”

경남 107호

김대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더 큰 인물이 되려면 ‘늘 그릇을 비워야 한다’는 지인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내

삶에 첫 번째 이루어야 할 목표로 ‘아너 가입’을 새기며 살았다. 이제 야 뜻을 이루게 됐다.”

전북 46호

양공진 레오개발 대표



“유년시절 학교에 가려고 왕복 20km를 매일 걸어 다니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기업을 운영하며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

충남 80호

이규석 광천조양맛김 회장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되고 자기입을 결심하였다.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 아너 소사이어티가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울산 80호

김순희 님



“남편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제주 88호

허명숙 에어린이집 원장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건강한 국민으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

다. 나눔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다. 나의 나눔이 아이들의 삶의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  **중앙회** 황운석뱅크코브호프 이사장, 조유경 유수홀딩스 상무, 박병철 에베레스트 트레이딩 콤플렉스 회장
-  **서울 공동모금회** Ibrahim Salem Design&Architecture Bureau CEO
-  **강원 공동모금회** 황은미 현대레미콘(주) 대표
-  **충남 공동모금회** 구연찬 장암칼스(주) 회장
-  **제주 공동모금회** 김남호 서현산업(주) 대표, 익명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호 독자의견

4월호 '착한기업'을 보면서 LG화학이 청소년 교육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봉사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헌활동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우도형 · 서울시 영등포구

월급 모아 기부하는 바리스타 3층사의 이야기를 읽고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장애인이지만 직접 커피를 만들면서 번 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척척 내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의 인식이 전환되길 기대해 봅니다.



최남이 · 부산시 북구

착한일터에 소개된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의 나눔은 큰 귀감이 됩니다. 임직원의 85%가 나눔에 참여한다는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이귀숙 · 부산시 해운대구

참여방법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열매 단행본 세트



우산



열매 배지, 열매밴드



USB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20by20

취약계층여성의 취업지원 사업 <아모레퍼시픽 뷰티풀 라이프>

뷰티풀 라이프는 200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한 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전국 취약 계층 여성(다문화, 북한 이탈, 미혼모, 노인, 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취업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을 지원하여 취약 계층 여성의 취업 기반 형성 및 경제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

-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직업훈련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연계 / 고용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취약계층 여성의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 및 기관 (2016. 4. 9 이전 설립 기관)
- 취약계층 여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

신청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사회공헌포털(www.apgroupcsr.com)을 통해 확인

희망을 전하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열 아너에게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의 편지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김상열 아너는 그 간절함을 잘 알기에 많은 학생들에게 먼저 손 내민다.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및 새터민 학생들에게겐 교육의 기회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이들에게엔

더 큰 꿈을 향한 발판이 되었다. 힘이 되어주니 학생들의 마음에도 나눔이 꽃피기 시작한다.

‘제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듯,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되겠습니다.’

공생을 가르치는 경영 멘토이자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그는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